

9~10일 태권도원 경연대회 마스터즈·시범 결선

#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주마

성금 4600만원·유튜브 생중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이 주최·주관하는 2019 태권도원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 마스터즈 부문과 시범 부문 결선이 오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9월 28~29일 시범 부문 예선을 시작으로 10월 5~6일 태권체조, 10월 12~13일 품새·자유 품새를 진행했고, 태권도원 경연대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즈 부문과 시범 부문 결선이 이번 주말 펼쳐진다.

40개 팀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부문은 품새·겨루기·격파 등의 경연을 통해 태권도 종합 최강자를 가린다. '시범' 부문 결선은 지난 9월 예선전을 통과한 18개 팀이 출전해 고난도 단체연무와 위력 격파 등 태권도만의 화려한 발차기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 마스터즈 부문에는 2018년 경연대회 우승자들이 참가하는 등 2연패 달성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터즈



즈 부문과 시범 결선은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한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용 사업본부장은 "태권도원 경연대회는 모든 부문이 흥미진진하지만

특히 마스터즈 부문과 시범 부문 결선은 정말 최고다"며 "이번 주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태권도원을 찾아 단풍에 물든 태권도원도 즐기고, 태권도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경연대회도 관람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회 관련 문의는 '2019 태권도원 경연대회' 홈페이지(<http://contest.tkdwon.kr>)와 전화(063-320-0077)로 하면된다. /우주=전문선 기자

## 英미러 '손흥민, 주중 챔스 원정길 동행하지 않을 수도'

영국 축구 매체 '미러'가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오는 7일(한국시간) 열리는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원정 길에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러는 5일 "손흥민이 잉글랜드 고메스의 부상 때론 충격 여파로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토트넘의 원정 경기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 4일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에버턴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후반 34분 고메스를 향한 백패스를 발칙을 범했다.

손흥민의 태클에 중심을 잃은 고메스는 앞에 있던 세르주 오리에와 충돌하면서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다.

손흥민은 예상치 못한 고메스의 큰 부상에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별다른 항의 의사를 표하지 않은 채 스태프의 부축을 받아 라커룸으로 향했다.

이 충격과 상당히 큰 모양새다. 토트넘은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손흥민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EPL 사무국으로부터 세 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번 UCL 출장 또한 불투명하다는 것이 미러의 설명이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고메스에게 부상을 입게 한 후 매우 심란해하고 있다. 고메스의 부상 이후 눈에 띄게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보였다"면서 "토트넘 또한 손흥민의 멘탈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베오그라드 원정 길에 오를 수 있는 멘탈인지 다소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라고 손흥민의 출전에 부정적인 뜻을 내뼐었다. /뉴시스

## 도내 스포츠클럽, 전국 교류대회서 '두각'

전북스포츠클럽 등 7개 클럽 9개 종목 422명 출전

전북 배드민턴·익산 축구·완주 탁구 우승

포항시 일원에서 열린 제4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가 지난 3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전국 98개 스포츠클럽 4000여명의 선수단이 탁구,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생활체조 등 10개 종목에서 열전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 전북은 7개 클럽 9개 종목 42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고 전했다.

전북스포츠클럽은 배드민턴 중등부(취미반) 우승과 함께 초등부(취미반)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익산스포츠클럽은 축구 초등부(선수반) 우승과 배드민턴 성인부 준우승, 남원스포츠클럽은 탁구 초등부(선수반) 우승, 테니스 초등부(선수반) 준우승 달성과 함께 화합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완주스포츠클럽은 탁구 성인부 우승, 전주비전스포츠클럽은 축구 성인부 3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작년 7월 공공스포츠클럽에 선

정된 무주스포츠클럽은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조 성인부 3위의 성적을 거두며 도내 스포츠클럽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특히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인 '선수재변화대 지원 및 스포츠클럽 선수육성사업'에 선정된 전북과 익산스포츠클럽은 선수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우수선수 발굴과 지역 선수들의 재변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전북이 전국 제일의 스포츠클럽 선지로서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도내 스포츠클럽 활성화로 펼쳐진 학교체육 활성화와 도민 누구나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전국 98개의 스포츠클럽 중 12개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스포츠클럽 배드민턴부



익산스포츠클럽 축구 초등부

## 북한 4·25체육단, AFC컵 준우승

지난달 남쪽 축구 대결에서 '깜깜이 운영'을 선보였던 북한이 중립지역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북한 4·25체육단은 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쿠알라룸푸르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알이헤드(레바논)와의 2019년 AFC컵 결승에서 0-1로 저 준우승을 차지했다.

원래 이 경기는 북한 평양의 김일성경기장에서 2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장소가 중국 상하이로 바뀌었다가 다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변경됐다.

지난달 15일 평양에서 열린 한국과 북한의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경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대회는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없는 국가의 클럽들이 참가하는 대회다.

/뉴시스

# 너를 믿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너를 보여줘  
너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응원해!**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의 모든 수험생을 응원합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교실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